시민·선수단·조직위 하나 되어 "우리 모두 챔피언"

18일 아시아문화전당서 마스터즈수영대회 폐막식
조선대·염주체육관 경기장 철거 중…남부대는 종료후 철거

84개국 6000여명의 지구촌 수영 동호인들을 열광시켰던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폐회식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폐회식 주제는 '다 함께 하나 되어'로 전 세계 마스터즈 선수들과 대회를 위해 땀 흘린 모두가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폐회식은 대북 퍼포먼스인 행사를 알리는 '빛의 연주'라는 주제의 북소리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어 '우리 모두 챔피언'이라는 소주제로 어린이 합창단이 포함된 시민 합창단 90여명과 기수단, 피켓요원 등이 출연해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부르며 참가국 깃발이 입장한다.

이날 폐회식에는 이용섭 조직위원장 겸 광주광역시장, 모하메드 디옵 FINA(국제수영연맹) 뷰로 리에종, 도린 티보즈 FINA 마스터즈 위원장 등 FINA 관계자와 선수단,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한다.

폐회식 주제는 '다 함께 하나 되어'로 전 세계 마스터즈 선수들과 대회를 위해 땀 흘린 모두가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 중간에는 모하메드 디옵 FINA 뷰로 리에종의 폐회 인사말이 이어지고 이번 마스터즈 대회 영상들과 함께 하늘에 불꽃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번 마스터즈 대회의 개폐회식은 광주 시민들이 모여 민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처럼, 온 세계에서 모인 물방울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물줄기로 변해 미래의 바다로 함께 향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공군의장대에 의해 대회기가 내려지고 이용섭 조직위원장이 대회기를 FINA에 반납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섭 조직위원장의 폐회사가 펼쳐지고 이어 마스터즈대회의 참가자와 시민들이 40여분간 축하공연을 즐긴다.

축하공연은 가수 박미경을 비롯해 부활의 김태원과 박완규가 출연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마스터즈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먼저 경기가 마감된 경기장들의 본격적인 철거도 시작됐다.

마스터즈대회 종목이 아닌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선수권대회 이후 철거가 진행중이다. 오는 9월11일까지 철거가 완료되고 기존 축구장 시설로 복구된다.

지난 11일 경기가 마감된 염주종합체육관의 아티스틱수영장과 여수오픈워터경기장도 다음날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염주종합체육관은 체육관 바닥을 들어내고 임시 수조를 설치한 만큼 향후 구기 종목 등의 경기 진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복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픈워터 경기장인 여수해양엑스포공원도 해상시설 등의 철거작업을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경기장 부지에 대한 복구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남부대 축구경기장에 설치된 수구 경기장은 마스터즈대회가 종료된 뒤 철거작업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운동장 복구 공사가 진행된다.

남부대 주경기장 역시 마스터즈 대회 종료 후 철거가 시작되며, 데크와 내부 칸막이 등을 없애는 공사가 12월께 마무리된다. 메인프레스센터 등 부대시설의 철거는 내년 2월쯤 끝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새 일왕 "과거 깊은 반성"…아베는 '반성·책임' 언급 안해

日, 종전 74주년 전몰자추도식

15일 일본 도쿄의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종전 74주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의 나루 히토 (R) 황제와 마사코 (L) 황제가 제단에 절을한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5일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일제가 일으켰던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4주년 기념행사인 '전국전몰자추도식'을 열었다.

이날 추도식은 전후 세대인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지난 5월 즉위 후 처음 열린 일본 정부 주최의 종전 기념행사라는 점에서 일왕의 언급 등이 주목받았다.

나루히토 일왕은 처음 참석한 전몰자추도행사 기념사를 통해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을 맞았다"며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유족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새롭게 느낀다"고 밝혔다.

일왕은 이어 "종전 이후 74년간 여러 사람의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구축됐지만 많은 고난에 빠졌던 국민의 행보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深い反省)을 한다고 했다.

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절히 원한다"며 세계 평화와 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나루히토 일왕이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4월 퇴위한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의 견해를 계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2015년 추도식 때부터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반성'이나 일제 침략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시사하는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기념사에서 "이전 대전(大戰)에서 300만여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다"며 태평양전쟁 관련 전몰자들의 성격을 열거했다.

아베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전후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한길을 걸어왔다.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왔다"며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2012년 말 총선에서 이겨 재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8·15 종전 기념행사에서 가해자로서의 일본 책임을 거론하지 않은 셈이 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일인 매년 8월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을 열어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당시 사망한 자국민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참배는 안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종전일(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다시 공물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가 패전일에 이 공물을 보낸 것은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 연속이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만큼 이번 패전일에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에는 직접 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종전일과 봄과 가을의 춘·추계 예대제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가 있다. 이곳에는 일제의 군인이나 군속으로 징용됐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2만1181명도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아베 공물 봉납에 깊은 우려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종전일인 15일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우익 성향 의원들이 집단참배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자세가 바탕이 될 때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개인 자격으로 보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한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연합뉴스

해외 한인 사회에서도 '노 재팬' 동참 확산

미주 한인단체 이어
유럽한인경제인총연합회도

국내의 '노 재팬' 흐름에 동참하는 재외동포 사회가 늘고 있다.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고광희)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경제제재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더는 역사를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제재가 지속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기업과의 거래 중단 등 단체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유럽 21개국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앞서 로스앤젤레스(LA)한인회 등 미주 20여개 미주 한인단체도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명 운동과 한국 제품 애용, 일본 여행 자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백승국)도 지난 8일 낸 성명에서 "호주 등 대양주 각국 한인회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을 심각한 경제 침략으로 규정,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양주에서도 'NO 재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991㎡, 지분매매
단기투자 최고지역
▶ 도시지역/자연녹지/그린벨트
▶ 도로접, 각종개발호재多
▶ 대학교수, 세무사, 건설회사도 공유자임
▶ 기획부동산 아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남면 모후산 유마리 대지 등 1021㎡ 조용한 생활 적합 4500만원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5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400여주 84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양시 옥룡면 동골리 산 4959㎡ 펜션적합 교환가능 4억5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등 적합 17억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장성토지 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國家公認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